논리연구 19-2(2016) pp. 145-184

간극이론과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

이 진 희

【국문요약】 윌리엄슨(Williamson)은 간극이론과 타르스키 T-도식이 양립불가능함을 보였다. 필자는 이글에서 이러한 윌리엄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간극이론이 ‘p⊨T<p> 그리고 T<p>⊨p’와는 양립가능함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간극이론이 진리에 대한 최소한의 직관을 포착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의 논의는 간극이론의 논리적 공간을 ‘p⊨T<p> 그리고 T<p>⊨p’와 ‘이가율의 부정’의 양립가능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간극이론을 수용할 경우 함께 수용해야할 귀결개념을 제시하고, 아래 두 주장이 간극이론과 진리에 대한 최소 직관의 논리적 귀결임을 보일 것이다. 1) not-T<p>와 T<not-p>는 동치가 아니다. 2) ‘p⊨T<p>’는 성립하지만 ‘not-T<p>⊨not-p’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요어】 간극이론, 이가율, 논리적 귀결, 윌리엄슨

투고일: 2016.5.8 심사 및 수정완료일: 2016.6.12 게재확정일: 2016.6.13

* 이 논문을 읽고 여러 가지 문제를 꼼꼼하게 지적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1. 서론

모호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는 간극이론(gap theory)이다. 간극이론이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진술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참, 거짓>이 포괄적이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극이론은 ‘모든 진술은 참이나 거짓 둘 중의 하나의 진리값을 갖는다.’는 이가율(principle of bivalence)의 거부를 정의적 특징으로 갖는다. 이러한 간극이론에 대한 주목할 만한 비판 중 하나는 윌리엄슨(Williamson)에 의해 제시되었다.[1] 윌리엄슨은 타르스키 T-도식과 간극이론으로부터 모순이 도출됨을 아래와 같이 보인다.[2]

1. not: T<p> 이거나 F<p>
2. p인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T<p>
3. not: p 이거나 not-p
4. p 그리고 not-p

1은 p가 이가율의 반례 즉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며, 2는 T-도식을 p에 적용한 것이다.[3] 그래서 윌리엄슨 논증은 간극이론과 T-도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모순율의 거부 역시 수용해야 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곧 T-도식과 간극이론이 양립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모순을 허용하지 않는 한, 간극이론과 T-도식으로부터 모순이 도출되었다는 것은

---

1) Williamson(1994), pp. 187-192.

2) ‘T<p>’는 ‘<p>는 참이다’를 의미하며 ‘F<p>’는 ‘<p>는 거짓이다’를 의미한다. <p>는 진술 p의 이름이다. 위의 정식화는 그리너프(Greenough)를 참조한 것이다. Greenough(2010), p. 116.

3) 논의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의 논의에서 p와 같이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진술을 ‘미결정 진술’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들이 양립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4]

이러한 윌리엄슨 논증에 대한 간극론자들의 일차적 대응은, 고전적 동치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T-도식을 그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간극이론을 수용한다는 것은 고전적 의미론의 거부나 수정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T-도식 역시 새롭게 규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래에 제시된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은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5] 그리고 이것이 윌리엄슨 논증이 주목받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T-도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은 포기하기 어려운데, 이 직관에 기초해서도 윌리엄슨 논증은 성립하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 'p이면 T<p>' 그리고 'T<p>이면 p'

특정한 진리론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p가 참이면 T<p>가 참이고 T<p>가 참이면 p가 참이라는 것을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극론자들 역시 위의 직관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가 참이라는 것을 수용하면서 T<p>가 참이라는 것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T<p>가 참이라는 것을 수용하면서 p가 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 역시 반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점은 p와 T<p>의 관계를 논리적 귀결 관계로 이해할 경우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논리적 귀결을 어떻게 정의하든, p가 참인 모든 경우 T<p>가 참이고

4) 모순을 허용하면 위의 논의는 달라진다. 모순이 허용된다면 '양립가능성' 자체가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간극이론 뿐 아니라 모순을 허용하는, 즉 진리값의 겹침을 주장하는 겹침이론(glut theory) 역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이 글에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간극이론을 수용할 경우 모순율을 거부해야한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겹침이론과 관련된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5) Williamson(1994), p. 190. 참조.

T<p>가 참인 모든 경우 p가 참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우리로 ‘not-p이면 F<p>’와 ‘F<p>이면 not-p’ 역시 수용할 수 있다. T<p>로부터 p를 추론할 수 있다면, p에 대한 부정으로 부터 F<p>를 추론할 수 있으며 그 역도 성립하기 때문이다.[6] T-도식을 이러한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으로 대체한 논증을 ‘변형된 윌리엄슨 논증’(MWA)이라고 한다면, MWA가 성립한다는 것은 쉽게 입증된다. not-T<p>와 ‘p이면 T<p>’의 환위 혹은 논리적 귀결과 관련된 대우규칙에 의해 not-p가 추론되며, 같은 이유로 not-F<p>와 ‘not-p이면 F<p>’에 의해 p가 추론되기 때문이다.[7] 이러한 MWA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8]

M1. not-T<p> 그리고 not-F<p>
M2. ‘p이면 T<p>’ 그리고 ‘T<p>이면 p’
M3. ‘not-p이면 F<p>’ 그리고 ‘F<p>이면 not-p’
M4. not-p

---

6) 위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F<p>’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F<p>를 not-T<p>로 이해했을 경우 ‘not-p이면 F<p>’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고, F<p>를 T<not-p>로 이해했을 경우에 ‘not-p이면 F<p>’는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의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는 MWA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소개하는 것이므로 이 둘의 차이를 논의하지 않고 위와 같이 not-p와 F<p>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F<p>와 관련된 문제는 3장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초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7)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으로 표현되는 p와 T<p>의 관계는 조건문이나 논리적 귀결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에, MWA가 의존하는 추론규칙은 조건문과 관련된 ‘환위’ 혹은 논리적 귀결과 관련된 ‘대우규칙’이다. 초고에서 필자는 이를 모두 ‘환위’로 부주의하게 표현하였다. 이 점을 지적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8) 앞에서 제시한 윌리엄슨의 논증과 달리 M1을 위와 같이 제시한 이유는 MWA와 관련된 추론의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M5. p
M6. p 그리고 not-p

위의 논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MWA는 특정한 간극이론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주장 자체가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과 양립불가능함을 입증하는 논증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MWA는 간극론자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간극이론과 진리에 대한 최소한의 직관이 양립불가능하다면 포기해야 하는 것은 간극이론이라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때문이다.

물론 MWA를 반박하는 간극론자들의 주장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특히, MWA를 구성하는 ‘부정’과 같은 연결사나 ‘진리술어(T)’ 혹은 ‘논리적 귀결’을 새롭게 해석할 경우, 우리는 어렵지 않게 M1과 M2, 3으로부터 M4나 M5가 도출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다.[9] 필자 역시 이러한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MWA를 반박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두 측면에 기인한다. 하나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MWA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주장이 직접 함의하지 않는 추가적 가정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추가적 가정에 기초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 가정이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주장 혹은 M1보다 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거나 추가적 가정의 도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MWA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통해 MWA를 거부하는 전략에 윌리엄슨과 같은 고전논리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추가적 가정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간극론자들에게 있으며, 후자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추가적 가정에 의존하는 MWA에 대한 거부전략은 임시방편

9) 이러한 간극론자들의 전략은 2장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적 수정이거나 논점을 선취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MWA를 거부하기 위해 추가적 가정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을 논리적 귀결을 통해 이해할 경우, 우리는 추가적 가정 없이 T<p>는 p의 논리적 귀결이지만, not-p는 not-T<p>의 논리적 귀결이 아님을 보일 수 있으며, 이 경우 M1과 M2로부터 M4가 도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곧 M1 이외에는 다른 비고전적 가정 없이 MWA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M1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서 p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님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p 그리고 not-p’가 참이라는 주장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필자가 이 글을 통해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M1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같은 연결사 및 ‘진리술어(T)’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의미 변화는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 범위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M1을 수용하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가정을 다음 장에서 제시할 것이며, 비고전적 가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전적 메타논리학을 전제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의 논의는 고전적 메타논리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MWA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

이를 위해 필자는 다음 장에서 MWA에 대한 기존 간극론자들의 대응을 살펴보면서, MWA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을 ‘p⊨T<p> 그리고 T<p>⊨p’로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주장을 수용할 경우 적어도 논리적 귀결과 관련된 대우 규칙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논의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10) 초고에서는 이러한 필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었다. 특히 메타논리와 ‘부정’ 및 ‘진리술어(T)’에 대한 정확한 관계를 규정하지 않았었다. 이점을 지적해준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첫 번째 단계는 논리적 귀결로 이해된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과 M1을 받아들일 경우 ‘not-T<p>와 T<not-p>가 동치가 아님’ 역시 받아들여야 함을 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M1과 논리적 귀결로 이해된 M2를 수용할 경우 ‘not-T<p>와 T<not-p>가 동치가 아님’ 역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not-T<p>와 T<not-p>에 대한 논의에 기초해서 고전적으로 동치인 아래 두 귀결 개념이 동치가 아니며 M1과 M2를 수용할 경우 귀결 1을 수용해야 함을 보일 것이다.[11]

귀결 1. 전제(들)가 참인 모든 모형에서 결론이 항상 참인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결론은 전제(들)의 논리적 귀결이다.

귀결 2.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모형이 없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결론은 전제(들)의 논리적 귀결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근거해서 ‘p⊨T<p>’와 ‘T<p>⊨p’는 성립하지만 ‘not-T<p>⊨not-p’는 성립하지 않을 보일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필자의 논의는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것이 직접 함의하지 않는 추가적 가정 없이 MWA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미결정 진술의 경우를 제외하면 연결사의 고전적 의미를 수용하면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해서 간극이론은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과 양립가능할

---

[11] ‘논리적 귀결’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귀결’에 대한 정의의 다양성은 본 논문과 직접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위와 같은 직관적 정의에 기초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글에서 필자는 고전적 메타논리학을 전제한다. 따라서 논리적 귀결 역시 고전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논리적 귀결’과 관련된 필자의 논의는 고전적 귀결 개념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M1을 수용했을 경우 귀결 1과 귀결 2가 동치가 아니며, M1과 M2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귀결 1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 아니라 ‘p가 참일 때에만 T<p> 참이고 다른 경우에는 거짓이다.’는 ‘강한 의미론적 진리 개념’과도 양립가능함을 보일 것이다.[12)]

2. MWA를 거부하기 위한 예비적 논의

M1과 M2를 수용하면서 MWA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는 충족되어야 한다.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은 ‘조건문’을 통해 ‘$p \supset T<p>$ 그리고 $T<p> \supset p$’로 이해되거나 ‘논리적 귀결’을 통해 ‘$p \models T<p>$ 그리고 $T<p> \models p$’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3)]

C1. p가 미결정일 경우, ‘$p \supset T<p>$’와 ‘$T<p> \supset p$’는 참이면서 ‘$\neg T<p> \supset \neg p$’는 미결정이거나 거짓이다..

C2. ‘$p \models T<p>$’이고 ‘$T<p> \models p$’이면서 ‘$\neg T<p> \not\models \neg p$’이다.[14)]

C1, C2와 관련해서, 우리는 MWA를 거부하는 간극론자들의 전략을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C1을 통해 MWA를 거부하는 전략은 조건문과 관련된 의미론적 논의에 기초하는 것인 반면 C2

---

12) ‘강한 의미론적 진리 개념’이란 ‘강한 진리의 의미론’(the semantic of strong truth)라고 부르는 것이다. Greenough(2010), p. 119.

13) 물론 M1과 M3으로부터 M5가 추론되지 않아도 MWA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건문’ 및 ‘논리적 귀결’과 관련된 논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에는 C1, C2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문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간극론자들 역시 연언도입은 수용할 것이기 때문에, M4와 M5로부터 M6이 도출된다는 것은 전제하였다.

14) 논리적 귀결이 미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C2에서 미결정인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 논리적 귀결 관계 모호한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이러한 논리적 귀결의 미결정성은 본 논문의 중요한 논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논리적 귀결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Barnett(2013), 이진희(2014)를 참조할 수 있다.

를 통해 MWA 거부하는 전략은 논리적 귀결과 관련된 논의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를 ‘전략 1’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전략 2’라고 부른다면, 필자는 전략 2를 통해 MWA를 거부하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전략 1과 관련된 문제점을 먼저 살펴본 후 전략 2와 관련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전략 1의 문제점

필자가 전략 2를 택한 이유는, 전략 1을 취할 경우 C1을 만족하기 위한 의미론적 가정이 요구되는데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주장으로부터 이러한 의미론적 가정이 직접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점은 조건문을 포함한 연결사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간극이론적 정의가 있을 뿐 아니라,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조건문의 의미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p가 미결정일 경우 ‘p⊃T<p>’와 ‘¬T<p>⊃¬p’의 값을 결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전략 1을 통해 C1이 만족됨을 보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의미론적 가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추가적 가정이 MWA를 거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 전략 1을 통해 MWA를 거부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해결이거나 논점을 선취하는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반해 전략 2를 취할 경우, 우리는 추가적 가정 없이 M1과 논리적 귀결로 이해된 M2만으로 C2가 성립함을 보일 수 있다.[15] 이는 C1이 만족됨을 보이기 위해서는 미결정인 경우를 포함한 의미론적 논의를 전제해야 하지만, C2의 경우 전제가 참인 경우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것 이외의 다른 비고전적 가정 없이도 C2와 관련된 논의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5) 이것이 필자 3장과 4장에서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 1)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C1과 관련된 간극론자들의 논의를 잠시 살펴보자. C1을 만족하는 조건문의 의미를 규정해야 하기 위해서는, p가 미결정일 경우 T<P>의 값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T<p>의 값은 M1에 의해 쉽게 결정될 수 있다. M1을 수용하면 p가 미결정일 경우 T<p>가 거짓이라는 것 역시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M1은 미결정 진술 p가 T<p>도 아니고 F<p>도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M1을 받아들이면 p가 미결정일 경우 ¬T<p>가 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한다.[16] 그리고 간극이론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참인 진술의 부정을 미결정이나 참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p가 미결일 경우 T<p>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표 1>과 같이 T<p>와 F<p>의 값을 결정할 수 있다.[17]

<표 1>

p	¬p	T<p>	F<p>
T	F	T	F
N	N	F	F
F	T	F	T

16)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간극이론을 수용하면서 M1을 미결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MWA을 거부하기 위해 M1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MWA는 M1과 M2, 3으로부터 모순이 도출됨을 주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M1이 참이라는 것을 수용하면서도 간극이론과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이 양립가능함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17) <표 1>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p가 미결정일 경우 ¬p 역시 미결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우선 이 주장을 잠정적으로 수용하고,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또한 ‘N’은 미결정의 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표 1>은 그리너프(2010)을 참조한 것으로 ‘더밋의 가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더밋의 가정이란 p가 미결정일 경우 T<p>와 F<p>가 거짓이라는 것이다. Dummett(1978), p. 233. Greenough(2010), p. 120.

p가 미결정일 경우 T<p>가 거짓이라면 같은 이유로 F<p> 역시 미결정이기 때문에 <표 1>과 같이 F<p>의 값을 결정할 수 있다.[18] 그리고 T<p>와 F<p>의 값이 위와 같다면, C1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p가 미결정일 경우 <표 2>와 같은 진리값 부여가 가능해야 한다.[19]

<표 2>

	식	전건의 값/후건의 값	조건문의 값
1	p⊃T<p>	N/F	T
2	T<p>⊃p	F/N	T
3	¬T<p>⊃¬p	T/N	N or F

그런데 <표 2>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전건이 미결정일 경우 전체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뿐더러 '¬T<p>⊃¬p'의 값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표 2>와 같은 진리값 부여가 단지 C1을 만족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적 처방이 아니기 위해서는 조건문과 관련된 의미론적 논의에 기초해서 위와 같은 진리값 부여가 설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간극이론이 다양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러한 간극이론들에서의 연결사의 의미는 다르게 이해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초평가주의(supervaluationism)뿐 아니라 다양한 다치 논리체계가 존재하며 각 체계들에서 연결사들은 다르게 정의된다. 더구나 T를 대상언어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표 2>를 만족하지 않은 체계 역시 존재한다.[20] 그리고 이러한 간극이론의 다양성이 <표 2>와 같은 조건문

18) <표 1>이 성립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4장에서 다시 제시될 것이다.

19) 논의의 편의를 위해 미결정의 값을 N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20) 예를 들어, 클린(Kleen)의 강한체계(K_3)와 약한 체계(B_3)에서는 전건이 미결

에 대한 의미부여가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주장이 직접 함의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일차적 증거이다. <표 2>를 만족하는 조건문의 의미부여가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주장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다양성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루카에비치(Łukasiewicz)의 L_3과 같이 환위가 성립하는 논리체계를 선택한 후 C1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연결사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러한 추가적 연결사의 도입 및 의미부여가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주장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점은 그리너프(Greenough)의 논의를 통해 잘 드러난다. 그리너프는 C1을 충족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연결사를 정의한다.[21)]

<표 3>

p	q	p⊃q	p≡q	p&q	p∨q	p→q	p↔q
T	T	T	T	T	T	T	T
T	N	N	N	N	T	N	N
T	F	F	F	F	T	F	F
N	T	T	N	N	T	T	N
N	N	T	T	N	N	T	T
N	F	N	N	F	N	T*	T*
F	T	T	F	F	T	T	F
F	N	T	N	F	N	T	T*
F	F	T	T	F	F	T	T

<표 3>은 ‘→’와 ‘↔’를 제외하면 잘 알려진 L_3이다. 따라서 <표 3>은 L_3을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래서 그리너프의 체계

정인 모든 경우 조건문은 미결정으로 정의되며, 루카에비치(Łukasiewicz)의 L_3에서는 조건문과 관련해서 환위가 성립한다.

21) 별표(*)는 ⊃, ≡와 →, ↔의 값이 달라지는 지점을 표시한 것이다. Greenouh(2010), p. 120.

를 'L_3^e'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는 위와 같이 '→'와 '↔'가 도입된 이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L_3에 따르면 환위가 성립할 뿐 아니라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전건이 미결정이고 후건이 거짓일 경우 전체문장은 미결정이므로 '$p \supset T<p>$'는 미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L_3에 기초해서 <표 2>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정의된 '→'를 포함하는 L_3^e를 도입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다.[22)]

그런데 MWA를 거부하기 위해 L_3을 위와 같이 확장하는 것에 윌리엄슨과 같은 고전 논리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L_3^e가 좋은 다치 논리체계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MWA를 거부하는 것은 논점을 선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L_3^e와 같은 논리체계가 가능하다는 것은 진리값이 간극을 허용하면서도 일관된 논리체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 그것을 통해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주장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이러한 비판에 동의한다. 적어도 앞에서 제시한 L_3^e의 도입 근거는 모두 <표 2>가 성립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은 L_3^e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전략 1을 통해 MWA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귀결에 의존하지 않고 <표 2>와 같이 조건문을 해석해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의 정당성을 추가적 가정 없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점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간극이론이 <표 2>와 같이 조건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해서 이러한 추가적 가정이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M1보다 더 큰 가정임은 분명한데, 이러한 가정을 도입하는 근거 역시 진리값의 간극을 인정하면서 진리에 대

---

22) 위에서 제시하는 이유는 그리너프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전략 1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 필자가 제시한 것이다. 그리너프가 제시한 이유는 뒤에서 논의될 것이다.

한 최소직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C1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찾기 어렵다. 이점은 다양한 간극이론들 중 <표 2>를 만족하는 간극이론을 선택해야만 하는 독립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3] 다시 말해, 간극이론을 수용하더라도 전건이나 후건이 미결정인 경우 조건문의 값을 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 중 <표 2>를 만족하는 조건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의 유지와 무관하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건이 미결정인 경우 전체 문장이 미결정이라는 것이라는 주장을 배제해야할 충분한 이유를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24]

이러한 문제점을 그리너프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고전논리학의 논리적 참이나 규칙의 보존, 특히 연역정리의 보존에 기초해서 L_3^e의 도입을 설명한다.[25] 간단히 말해, L_3^e를

---

23) 위의 주장은 전략 1과 관련된 것이다. 전략 2 특히 C2가 성립함이 먼저 입증된 후 이에 기초해서 C1을 만족하는 조건문을 도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4) 이점은 대표적인 간극이론인 초평가주의(supervaluationism)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초평가주의자들은 '선언'을 분배적(distributive) 선언과 집합적(collective) 선언으로 구분하고, 이가율은 분배적 선언문으로 배중율은 집합적 선언문을 이해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분배적 선언문의 부정이 집합적 선언문의 부정을 함의하지 않음을 통해 MWA를 거부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선언'에 대한 이해 및 이러한 이해를 정당화하는 '초참'(super truth)과 '초거짓'(super false)과 같은 초평가주의 고유의 의미론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간극론자들이 초평가주의 의미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초평가주의 의미론은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주장보다 명백히 더 큰 가정을 전제하는 것으로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초평가주의의 적절성과는 별개로 MWA와 관련된 논쟁에서 초평가주의의 사례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초평가주의와 관련해서는 Fine(1975), Varzi(2007)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5) 실제로 그러너프는 클린의 강한체계(K_3)와 약한체계(B_3)에서는 '$A \supset A$'가 항진식이 아닐 뿐 아니라 이 경우 '$A \vDash A$'는 성립하지만 '$\vDash A \supset A$'는 성립하

선택할 경우 연역정리가 성립할 뿐 아니라, 연역정리와 C2를 만족하는 p와 T<p>의 관계에 의해 ‘→’를 <표 3>과 같이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p⊃q의 경우 ‘p⊨T<p>’가 성립하지만 ‘⊨p⊃T<p>’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역정리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너프의 주장 자체는 수용할 수 있다. 비록 연역정리가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주장의 논리적 귀결은 아니지만, MWA를 제시하는 고전논리학자들은 연역정리를 수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p⊨T<p>’와 ‘T<p>⊨p’는 성립하면서 ‘¬T<p>⊨¬p’는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T<p>와 p의 관계 및 연역정리를 만족하는 조건문을 도입하는 것은 적어도 MWA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너프의 논의는 몇 가지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선 그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C2가 성립해야 한다. 그의 주장은 결국 C2가 만족된다는 것과 연역정리에 근거해서 ‘→’의 도입을 정당화하고 이에 근거해서 MWA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리너프는 C2와 연역정리에 명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가 ‘⊃’보다 더 적합한 조건문임을 보이는 논변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는 타당한 추론에서 보존되는 속성은 ‘진리’이지 ‘진리의 정도’나 ‘수용가능성의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건이 미결정인 경우 조건문을 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 ‘→’는 전건이 미결정인 경우 모두 참이기 때문에 미결정의 사례를 허용하는 간극이론에서는 참의 보존이라는 논리적 귀결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연결사라는 것이다.[26] 그러나 이러한 그의 주장 역시 조건문의 의미를 논리적

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해서 L_3을 선택한 후 이를 L_3^e로 확장한다. Greenough(2010), p. 121.

26) 이러한 주장에 더해서, 그리너프는 ‘→’에 의해 정의되는 ‘↔’에 의존할 경우 ‘p↔T<p>’에 의해서도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은 보존되기 때문에, ‘p↔

귀결에 기초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가 간극이론에 더 적합한 근거 역시 참의 보존이라는 논리적 귀결의 특성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물론, 논리적 귀결과 관련해서 조건문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너프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귀결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1장에서 언급한 귀결 1과 귀결 2와 관련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귀결 1을 받아들이면 C2가 성립하지만 귀결 2를 받아들이면 C2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가 미결정일 경우 ¬T<p>는 참이고 ¬p는 미결정이므로, 귀결 1에 따르면 ‘¬T<p>⊨¬p’가 성립하지 않지만 귀결 2에 따르면 성립한다.[27] 따라서 그리너프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극론자들이 받아들여야하는 논리적 귀결은 귀결 1이라는 것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C2와 연역정리에 기초한 ‘→’ 도입 자체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이다.[28] 그런데 그리너프는 이러한 귀결관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 없이 C2 및 귀결 1을 전제하고 그의 논증을 제시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리고 이것이 필자 전략 2)을 택한 이유이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C1이 성립한다는 것을 추가적 가정 없이 입증하기 어려울뿐더러, 그리너프의 사례에서 보듯이 C1이 성립하는 이유를 C2에서 찾기 위해서는 논리적 귀결과 관련된 논의를 먼저 제시해

T<p>’로 T-도식을 대체할 경우 윌리엄슨 논증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해서 그는 윌리엄슨 논증을 거부하기 위해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을 논리적 귀결로 이해하는 것은 성급하게 논점을 흩트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Greenough(2010), pp. 121-122.

27) 이러한 귀결 2의 특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28) 이점은 귀결 2에 의존할 경우, p가 미결정일 경우에도 ‘¬T<p>⊨¬p’가 성립하고 그래서 연역정리를 수용하면 ‘¬T<p>→¬p’는 참이어야 한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표 3>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C1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야 하기 때문이다.

2) 전략 2와 MWA를 거부하기 위한 전제

필자는 전략 2를 통해 MWA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물론 필자 이전에도 전략 2를 통해 MWA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주장이 직접 함의하지 않는 가정에 의존할 경우 MWA를 반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전략 2로 분류할 수 있는 리차드(Richard)의 논증을 살펴보면서 MWA를 거부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29]

리차드(Richard)는 ‘p⊨T<p>’와 ‘T<p>⊨p’는 성립하지만, p가 미결정일 경우 ‘p⊃T<p>’와 ‘T<p>⊃p’는 미결정이라는 것을 통해 윌리엄슨의 논증을 반박한다.[30] ‘p⊨T<p>’와 ‘T<p>⊨p’는 성립하지만 단순조건문을 통해 표현되는 T-도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리차드의 논증은 MWA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윌리엄슨 논증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리차드의 논증 역시 ‘p⊨T<p>’와 T<p>⊨p’와 간극이론이 양립가능함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아 전략 2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리차드의 논증은 앞에서 제시한 그리너프의 논증보다 더 큰 가정에 의존한다는 난점을 갖는다.

리차드의 논증은 크게 보아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p⊨T<p>’와 ‘T<p>⊨p’에 근거할 경우 윌리엄슨 논증은 성립하지 않으며 ‘p⊨T<p>’와 ‘T<p>⊨p’를 통해서도 T-도식으로 표현되는 진리에 대한 직관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T-도식 대신 이러한 p와 T<p>의 귀결관계만으로도 충분한 논리체

29) 물론, 이러한 전제들은 M1과 M2가 직접 함의하는 것이다.

30) Richard(2000), p. 215.

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본 논문의 주제가 아니므로 첫 번째 부분, 특히 윌리엄슨 논증을 거부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의 논의를 살펴보자.

리차드는 그가 ‘강한 귀결’이라고 부르는 귀결 1과 ‘p에 대한 부정’이 ‘¬p에 대한 긍정’을 함의하지 않는다는 간극이론의 특징에 근거해서 이가율의 부정으로부터 모순율의 부정이 도출되지 않음을 보인다.[31] T<p>가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p가 도출되지 않고 T<¬p>가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p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32] 그러나 이 경우에도 T-도식이 이가율을 함의한다면 이가율의 부정을 정의적 특징으로 갖는 간극이론과 T-도식은 양립불가능하다. 그래서 리차드는 T-도식을 ‘p⊨T<p> 그리고 T<p>⊨p’로 이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해된 T-도식을 수용하더라도 이가율을 수용할 필요가 없음을 입증한다. 이를 위해 그는 p가 미결정이라고 하더라도 p가 참이면서 T<p>가 참이 아닌 경우는 없을 뿐 아니라 T<p>가 참이면서 p가 참이 아닌 경우는 없기 때문에 ‘p⊨T<p>’와 ‘T<p>⊨p’가 성립함을 보인다. 그리고 T-도식을 ‘p⊨T<p> 그리고 T<p>⊨p’로 이해할 경우, 이렇게 이해된 T-도식은 고전적 T-도식과 이가율의 부정을 함의하지 않음을 보인다.[33] p가 미결정일 경우 T<p>와 F<p> 모두 미결정이기 때문에 ‘p⊃T<p>’와 ‘Tp⊃p’ 뿐 아니라 ‘T<p>≡p’와 ‘¬T<p>∧¬F<p>’는 모두 미결정이므로, ‘p⊨T<p> 그리고 T<p>⊨p’로부터 고전적 T-도식과 이가율의 부정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리차드의 논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귀결 1을 전제해야 한다. 귀결 2에 따를 경우 결론이 거짓이 아닌 경우 그 논증은 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앞에서 제시한

---

[31] Richard(2000), pp. 213-214.

[32] 이러한 주장은 ¬T<p>와 T<¬p>가 동치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33] Richard(2000), p. 215.

리차드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p \vDash T<p>$ 그리고 $T<p> \vDash p$’가 참이면서 ‘$T<p> \equiv p$’와 ‘$\neg T<p> \wedge \neg F<p>$’는 모두 미결정이므로, 귀결 2에 따를 경우 고전적 T-도식과 이가율의 부정이 ‘$p \vDash T<p>$ 그리고 $T<p> \vDash p$’의 논리적 귀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리차드는 그가 ‘강한 귀결’이라고 부르는 귀결 1을 도입하기만 할뿐 이러한 귀결 개념을 받아들여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의 논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가정들 역시 전제해야 한다.[34]

가정 1. p와 q가 미결정일 경우, $\neg p$, $p \wedge q$, $p \vee q$, $p \supset q$ 모두 미결정이다.

가정 2. p가 미결정일 경우, $T<p>$와 $F<p>$ 역시 미결정이다.

위의 가정들이 요구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리차드는 p가 미결정일 경우 $T<p>$와 $F<p>$가 미결정이라는 것을 통해 ‘$p \vDash T<p>$’와 ‘$T<p> \vDash p$’로부터 이가율의 부정인 ‘$\neg T<p> \wedge \neg F<p>$’가 도출되지 않음을 주장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정 1과 가정 2, 특히 p가 미결정일 경우 $\neg p$ 역시 미결정이라는 것과 p와 q가 미결정일 경우 ‘$p \wedge q$’ 역시 미결정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p \vDash T<p>$’와 ‘$T<p> \vDash p$’는 성립하지만 고전적 의미의 T-도식은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곧 ‘$p \vDash T<p>$’는 성립하지만, p가 미결정일 경우 ‘$p \supset T<p>$’는 참이 아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리차드는 조건문의 전건과 후건이 미결정일 경우 전체 문장은 미결정이라고 주장한다.[35]

---

34) 리차드는 이러한 가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그는 TW가 ‘홀쭉함’의 경계사례일 경우, ‘TW는 홀쭉하다.’와 ‘‘TW는 홀쭉하다’는 참이다.’가 모두 미결정이라고 단순히 주장한다. Richard(2000), p. 215.

그런데 가정 1에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한다. 우선 조건문에 대한 해석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조건문에 대한 리차드의 해석은 앞에서 언급한 L_3^e와 다를 뿐 아니라 이러한 해석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 가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부정, 연언, 선언과 관련된 가정 1은 수용할 수 있다. 연결사를 어떻게 이해하든, 연언지 혹은 선언지가 모두 미결정인 연언문과 선언문을 참이나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p가 미결정일 경우 ¬p가 미결정이라는 것은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주장이 직접 함의하는 것이다. 이는 M1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a가 F인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a가 F인지 F가 아닌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곧 'a가 F인지 ¬F인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Fa가 미결정 진술이라면 ¬Fa 역시 미결정 진술이라는 것이다.[36] 따라서 p가 미결정일 경우 ¬p가 미결정이라는 것은 미결정 진술의 특징에 의해 직접 정당화되는 것으로 모든 간극이론이 수용해야하는 기본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37]

---

35) Richard(2000), p. 215.

36) 이점은 모호성과 관련해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철수는 키가 크다'가 미결정이라는 것은 그가 '키가 큼'의 경계영역에 있다는 것으로, 이 경우 철수는 '키가 큼'을 분명하게 만족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키가 크지 않음' 역시 분명하게 만족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철수가 키가 크다'가 미결정이라면 '철수는 키가 크지 않다' 역시 미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밥지엔(Bobzien)이 입증했듯이, 이중부정규칙을 수용하면 M1로부터 'p가 미결정일 경우 ¬p 역시 미결정이다'가 직접 도출된다. Bobzien(2012), p. 192.

37) 물론 위의 주장은 고전적 T-도식을 전제하지 않은 것이다. 고전적 T-도식을 전제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윌리엄슨 논증을 통해 확인했듯이, 고전적 T-도식을 미결정 진술에 적용하면 모순이 도출된다. 위의 논의는 M1을 수용했을 경우 p가 미결정이라면 ¬p 역시 미결정이라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글을 통해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갖는 M1이 논리적 귀결로 이해된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과 양립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가정 2는 수용하기 어렵다. 가정 2는 <표 1>과 양립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가정 2를 수용하면 미결정 진술이 존재한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결정진술이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것이므로 M1을 미결정 진술에 대한 표준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정 2에 따르면, p가 미결정이면 T<p>와 F<p>는 모두 미결정이므로 가정 1에 의해 ¬T<p>와 ¬F<p> 역시 미결정이다. 따라서 가정 2를 수용할 경우, 우리는 진리값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주장 자체가 미결정이라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 p가 미결정일 경우 T<p>와 F<p>가 미결정이라면 가정 1에 의해 '¬T<p>∧¬F<p>'인 M1 역시 미결정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결정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며, 미결정 진술이 존재한다는 주장 자체가 미결정 진술이라는 것은 미결정성 특히 모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필자 역시 이러한 가능성 자체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MWA를 거부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 가정 2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략 1과 같이 '부정'과 '진리술어(T)'에 대한 추가적 가정을 전제해야 할뿐 아니라 MWA는 M1로 표현되는 미결정성에 대한 우리의 직관이 갖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M1에 따를 경우 ¬T<p>와 ¬F<p>는 참이기 때문이다.[38] 그래서 리차드의 논증은 비록 논리적 귀결로 이해된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을 통해 T-도식을 통해 표현하는 진리에 대한 직관을 포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p⊨T<p>'와 'T<p>⊨p'만으로도 적절한 논리체계를 구성할 수 있음을

38) 가정 2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참이 아닌 진술에 대해 참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님을 전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정'과 '진리술어(T)'에 대한 비고전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과 '진리술어(T)'에 대한 이해가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주장으로부터 직접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정 2에 기초하는 전략은 전략 1과 유사한 문제를 갖는다.

보여주는 성과를 갖지만, 윌리엄슨 논증, 특히 MWA를 거부하는 적절한 논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귀결 개념과 관련된 핵심적 논증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간극이론과 양립하기 어려운 의미론적 가정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전략 1에 근거해서는 MWA를 거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MWA를 효과적으로 거부하기 위해서는 전략 2를 위한 전제들 역시 진리값이 간극이 있다는 주장이 직접 함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간극이론과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이 양립가능함을 추가적 가정 없이 입증하고자 한다. 물론 필자의 논의에도 몇 가지 가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모두 간극이론과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이 직접 함의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다.

H1. p가 미결정이면, ¬p 역시 미결정이다.
H2. p가 미결정이면, ¬T<p>와 ¬F<p>는 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H1은 간극이론 특히 미결정 진술의 정의적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H2는 M1이 직접 함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 기초한 필자의 논증은 아래와 같은 논제들로 구성된다.

논제 1. 진리값의 간극을 인정했을 경우, T<¬p>와 ¬T<p>는 동치가 아니며 ‘¬T<p>⊭¬p’가 성립한다.
논제 2. 진리값의 간극을 인정했을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논리적 귀결은 귀결 1이다.

논제 1이 성립한다는 것은 C2가 성립함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MWA는 성립하지 않는다.[39]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을 논리적 귀결을 통해 이해했을 경우, ‘¬T<p>⊭¬p’가 성립하면, M1과 M2, 3으로부터 모순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제 1이 성립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논제 2가 정당화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그리너프와 리차드의 논증과 관련해서 확인했듯이 T<¬p>와 ¬T<p>는 동치가 아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귀결 2에 따를 경우 ‘¬T<p>⊨¬p’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특정한 귀결 개념에 대한 가정 없이 T<¬p>와 ¬T<p>는 동치가 아님을 정당화한 후, 이에 기초해서 논제 2를 정당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MWA를 거부하기 위한 필자의 전략은 전략 2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에서 M2는 ‘p⊨T<p> 그리고 T<p>⊨p’이며 M3은 ‘¬p⊨F<p> 그리고 F<p>⊨¬p’로 정의된다.

3. 논제 1에 대한 정당화

MWA에 대한 필자의 비판은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을 ‘p⊨T<p> 그리고 T<p>⊨p’로 이해할 경우 H1과 H2만을 전제하더라도 ‘¬T<p>⊭¬p’가 성립함을 입증할 수 있으며 그래서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과 간극이론이 양립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립가능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MWA와 같이 모순으로부터의 추론, 즉 모순이 추론되었을 경우 이러한 모순을 추론하는데 사용된 전제들이 양립불가능함을 받아들일 것이다.[40] 이러한 전제 아래

39) C2를 구성하는 요소 중 ‘p⊨T<p>’와 ‘T<p>⊨p’에 대한 별도의 정당화는 불필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그리너프와 리차드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p가 참인 모든 모형 m에서 T<p>가 참이고 T<p>가 참인 모든 모형에서 p가 참이라는 것을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0) MWA 자체가 간극이론과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으로부터 모순이 도출됨을 통해 이들이 양립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모순으로

필자는 이 장에서 논제 1을 입증할 것이다. 물론 논제 1, 특히 ‘¬T<p>≠¬p’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논제 2가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논제 2에 대한 정당화 역시 논제 1에 포함된 ‘¬T<p>≠T<¬p>’에 의존하기 때문에,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 장에서는 ‘¬T<p>≠T<¬p>’를 귀결 1에 의존하지 않고 입증하고 이에 근거해서 논제 1을 입증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논제 2에 대한 정당화를 통해 귀결 1에 의존하는 논제 1이 성립함을 다시 보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논제 1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1-1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1-1. ¬T<p>와 T<¬p>는 동치가 아니다.

1-1에 대한 직관적 근거는 간단하다. p가 미결정일 경우, 적어도 p가 참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T<p>는 참이지만 그렇다고 ¬p가 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41] 그리고 이러한 직관은 귀결 1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음과 같이 입증된다. 우선 H1로부터 p가 미결정일 경우, T<p>와 T<¬p>의 진리값이 같다는 것은 쉽게 입증된다. 둘 다 미결정 진술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H2에 의해, p가 미결정일 경우 ¬T<p>는 참이다. 따라서 ¬T<p>와 T<¬p>가 동치라면, p가 미결정일 경우 ¬T<p>와 T<¬p>가 모두 참일 뿐 아니라 ¬T<p>와 T<p>가 모두 참이라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런데 H1은 간극이론이 갖는 정의적 특징이므로, 간극이론을 수용하면서 H1을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모순을 인정하

부터의 추론을 통해 MWA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다.

41) 사실 1-1은 간극이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것은 p가 참이라는 것과 ¬p가 거짓이라는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p가 참이 아니라는 것과 ¬p가 참이라는 것이 동치일 수 없다는 것이다.

지 않는 한 ¬T<p>와 T<¬p>를 동치로 볼 수 없으며 그래서 1-1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귀결 1을 가정하면 1-1은 보다 간단하게 입증된다. 우선 p가 미결정일 경우 H2에 의해 ¬T<p>는 참이다. 그런데 M2에 의해 T<¬p>로부터 ¬p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T<p>와 T<¬p>가 동치임을 받아들이면, 귀결 1에 의해 p가 미결정일 경우 ¬p가 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H1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래서 ¬T<p>와 T<¬p>는 동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1-1에 근거해서 우리는 아래 1-2를 정당화할 수 있다.

1-2. T<¬p>는 ¬T<p>의 논리적 귀결이 아니다.[42]

1-2는 귀결 1과 간극이론의 특징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T<p>⊨T<¬p>'가 성립한다면 귀결 1에 의해 ¬T<p>가 참인 모든 경우 T<¬p> 역시 참이다. 그런데 p가 미결정일 경우 H2에 의해 ¬T<p>는 참이며 H1에 의해 T<p>와 T<¬p>는 같은 진리값을 갖는다. 따라서 '¬T<p>⊨T<¬p>'가 성립한다면, p가 미결정일 경우 ¬T<p>와 T<¬p>뿐 아니라 T<p> 역시 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T<p>와 T<p>가 모두 참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모순이므로 '¬T<p>⊭T<¬p>'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1-2에 의해 논제 1의 핵심적 주장인 1-3이 입증된다.

---

42) 참고로, 간극이론에서는 'T<¬p>⊨¬T<p>'는 성립한다. M2에 의해 'T<¬p>⊨¬p'가 성립하며 '¬p⊨¬T<p>'가 성립함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참'과 '부정'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든 ¬p가 참이면서 ¬T<p>가 참이 아닌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잉결정을 주장하는 겹침이론에서는 이러한 추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1-2는 겹침이론과 구분되는 간극이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겹침이론 특히 고전적 양진주의(classical dialetheism)에서는 '¬T<p>⊨¬p'는 수용하면서 'T<¬p>⊨¬T<p>'는 수용하지 않는다. priest(2006), p. 70. 참조.

1-3: 는 ¬p는 ¬T<p>의 논리적 귀결이 아니다.

1-3 역시 쉽게 입증된다. 우선 M2에 의해 ‘¬p⊨T<¬p>’는 성립한다. 따라서 ‘¬T<p>⊨¬p’가 성립한다는 것은 ‘¬T<p>⊨T<¬p>’가 성립함을 함의한다. 그런데 1-2에서 확인했듯이 ‘¬T<p>⊭T<¬p>’가 성립하므로 이러한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는 ‘¬T<p>⊭¬p’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방식으로도 입증가능하다. p가 미결정인 경우, H2에 의해 ¬T<p>는 참이다. 따라서 ‘¬T<p>⊨¬p’가 성립한다면, p가 미결정일 경우 ¬T<p>와 ¬p가 모두 참이라는 것이 추론되는데, p가 미결정일 경우 ¬p가 참이라는 것은 H1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T<p>⊭¬p’는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1-3이 성립하면 MWA가 성립하지 않는다. M1과 M2, 3으로부터 M4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T<p>⊨¬p’가 성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p⊨T<p>’와 ‘T<p>⊨p’에 의해 T-도식이 정당화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T<p>⊨p’와 ‘p⊨T<p>’가 모두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T<p>⊭¬p’가 성립한다면 T<p>와 p는 동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제 1과 관련된 논의를 통해 우리는 MWA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뿐 아니라 논리적 귀결로 이해된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을 수용하면서 T-도식을 거부하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표 1>을 확장한 아래 <표 4>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p	¬p	T<p>	T<¬p>	¬T<p>	F<p>
T	F	T	F	F	F
N	N	F	F	T	F
F	T	F	T	T	T

<표 4>가 성립한다는 것 역시 H1, H2에 의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 4>와 고전적 진리표와의 차이는 p가 미결정인 경우인데, p가 미결정인 경우 ¬p가 미결정라는 것은 H1이 직접 함의하는 것이며 ¬T<p>가 미결정이라는 것은 H2에 의해 입증되며 그래서 T<p>는 거짓이다. p가 미결정일 경우 F<p>가 거짓이라는 것 역시 H2에 의해 입증된다. p가 미결정일 경우 H2에 의해 ¬F<p>가 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표 1>을 통해 이미 제시된 것이기도 하다. <표 4>와 <표 1>의 중요한 차이는 T<¬p>와 관련되는데, <표 4>와 같은 T<¬p>의 진리값 부여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해 간단하게 설명된다. H1에 의해 p가 미결정일 경우 ¬p 역시 미결정이므로 H2에 의해 ¬T<¬p>는 참이고 그래서 T<¬p>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또한 위의 진리표를 통해 우리는 F<p>와 동치인 것은 T<¬p>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M1을 '¬T<p>∧¬T<¬p>'로 정의할 수 있으며 M3을 '¬p⊨T<¬p> 그리고 T<¬p>⊨¬p'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그 경우에도 MWA가 성립하지 않음은 쉽게 입증된다. 1-3이 성립하면 이 경우에도 MWA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43)]

더해서 우리는 <표 4>의 의미론적 근거 역시 수용할 수 있다. <표 4>를 통해 주장되는 것은 참이 아닌 미결정 진술에 대해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표 4>는 p가 참인 경우에만 T<p>는 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짓이라는 강한 의미론적 진리개념을 만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극이론은 T-도식을 통해 표현되는 진리에 대한 직관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p와 T<p>의 진리값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은 T가 p에 어떤 내용을

43) 물론 '¬T<p>⊭¬p'를 입증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T<¬p>⊭p' 역시 입증된다.

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표 4>를 도입해도 강한 의미론적 진리개념은 유지된다. 따라서 p와 T<p>의 진리값이 다른 이유는 T<p>가 p이외의 어떤 내용을 가져서가 아니라 미결정 진술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은 p와 T<p>가 동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p⊨T<p>’와 ‘T<p>⊨p’가 성립한다는 것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간극이론을 수용해도 논리적 귀결로 이해된 M3, 즉 ‘¬p⊨F<p> 그리고 F<p>⊨¬p’ 역시 성립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리적 귀결로 이해된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과 T-도식의 차이는 단지 ‘p⊨T<p>’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T<p>⊭¬p’가 성립하고, ‘¬p⊨F<p>’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F<p>⊭¬p’가 성립한다는 것뿐이다.[44]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은 모두 미결정 진술의 특징에 기인한다. ‘¬T<p>⊭¬p’가 성립하는 이유는 결국 p가 미결정일 경우 H2에 의해 ¬T<p>가 참이기 때문이며, ‘¬F<p>⊭¬p’가 성립하는 이유 역시 같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논제 1이 성립하며 그래서 MWA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누차 언급했듯이 이러한 필자의

[44] 위의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귀결 1이 전제되어야 하며 F<p>에 대응하는 것은 ¬T<p>가 아니라 T<¬p>라는 것 역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간극이론을 수용하면 논리적 귀결 개념 역시 수정되어야 하는데, 필자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간극이론적 귀결개념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은 MWA를 거부하는 것이며, 여타의 논증에 대한 비판과 같이 MWA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비판 중 하나는 이 논증의 전제를 모두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결론이 도출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MWA는 고전적 귀결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위의 논의와 다음 절의 논의를 통해 고전적 귀결개념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M1을 수용하면 귀결 1을 수용해야 하고 이러한 귀결 1을 수용할 경우 논제 1이 성립함을 보이고자 한다. 초고에서는 이러한 고전적 귀결 개념을 전제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다. 이점을 지적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제 2가 성립해야 한다. ‘전제가 참인 모든 모형에서 결론은 항상 참이다.’는 귀결 1과 달리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모형은 없다.’는 귀결 2에 의하면 ‘$\neg T<p> \vDash \neg p$’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p가 미결정이 아닌 경우 $\neg T<p>$가 참이면서 $\neg p$가 참이 아닌 모형은 없을 뿐 아니라 p가 미결정인 경우에도 $\neg T<p>$는 참이면서 $\neg p$가 거짓인 모형은 없기 때문에 비록 이 경우 $\neg p$가 미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귀결 2에 따르면 ‘$\neg T<p> \vDash \neg p$’는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귀결 1에 따를 경우 $\neg T<p>$는 참이면서 $\neg p$가 미결정인 모형은 ‘$\neg T<p> \vDash \neg p$’에 대한 반례로 성립한다.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은 참이 아니기 때문이다.[45] 따라서 귀결 1과 귀결 2는 동치가 아니며 간극론자들이 취할 수 있는 논리적 귀결은 귀결 1이라는 논제 2가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에서 제시한 필자의 논의는 MWA를 해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역설을 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귀결 1과 귀결 2를 모두 받아들이면, ‘$\neg T<p> \vDash \neg p$’가 성립하면서 ‘$\neg T<p> \nvDash \neg p$’가 성립한다는 모순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 장에서 논제 2를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논제 1이 성립함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4. 논제 2에 대한 정당화 및 가능한 비판

논리적 귀결과 관련된 논제 2는 아래와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1: 귀결 1과 귀결 2는 동치가 아니다.
2-2: 간극이론을 선택했을 경우 귀결 1을 선택해야 한다.

---

45) 위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T<p>$와 $\neg F<p>$가 동치가 아니라는 것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2-1은 이미 입증된 것이다. 귀결 1에서는 ‘¬T<p>⊭¬p’가 성립하지만 귀결 2에서는 ‘¬T<p>⊨¬p’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T<p>와 ¬F<p>가 동치가 아니라는 것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귀결 1과 귀결 2의 차이는 ¬T<p>는 참이면서 ¬p가 미결정인 모형이 귀결 1을 수용할 경우 ‘¬T<p>⊨¬p’의 반례로 성립하지만 귀결 2를 수용할 경우 반례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이 귀결 2에서는 ‘¬T<p>⊨¬p’의 반례가 아닌 이유는 결국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T<p>와 ¬F<p>가 동치라면 이러한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F<p>가 T<p>와 동치라면 ‘결론이 거짓은 아니다’가 곧 ‘결론은 참이다’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T<p>⊨¬p’뿐 아니라 결론이 미결정인 논증에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귀결 1과 귀결 2가 동치가 아님을 보이기 위해서는 T<p>와 ¬F<p>가 동치가 아니라는 것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F<p>는 ¬T<¬p>와 동치이다.[46] 그래서 T<p>와 ¬F<p>가 동치인가의 문제는 곧 T<p>와 ¬T<¬p>가 동치인가의 문제로 모아진다.

T<p>와 ¬T<¬p>가 동치가 아니라는 것은 M1과 H1, 2에 의해 쉽게 입증된다. p가 미결정일 경우 H1에 의해 ¬p 역시 미결정이므로 H2에 의해 ¬T<¬p>는 참인 반면, 같은 이유로 ¬T<p>도 참이다. 따라서 T<p>와 ¬T<¬p>가 동치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p가 미결정이 경우 ¬T<¬p>와 ¬T<p>뿐 아니라 T<p>가 참이라는 것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T<p>와 T<p>가 참이라는 것은 명백히 모순을 범하는 것이므로 T<p>와 ¬T<¬p>는 동치가 아니라는

46) 앞에서 확인했듯이, F<p>와 동치인 것은 T<¬p>이기 때문이다. F<p>와 동치인 것은 T<¬p>라는 것은 귀결 1을 전제하지 않고도 입증가능하다. F<p>를 ¬T<p>라고 한다면, p가 미결정인 경우, M1에 의해 ‘¬T<p>∧¬(¬T<p>)’라는 모순이 직접 도출되기 때문이다.

것이다. 물론 1-1이 성립하지 않으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T<p>와 T<¬p>가 동치라면 그리고 이중부정규칙을 수용하면 T<p>와 ¬T<¬p>가 동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우 귀결 1과 귀결 2가 동치이면서 동치가 아니라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는 귀결 1에 의존하지 않고도 ¬T<p>와 T<¬p>가 동치가 아님은 이미 입증했다. 따라서 귀결 1과 귀결 2가 동치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고 그래서 2-1이 간극이론의 논리적 귀결이라는 것이다.

2-2 역시 간극이론의 논리적 귀결임을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다. M1과 M2를 전제했을 경우 귀결 2는 모순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귀결 2를 받아들이면 '¬T<p>⊨¬p'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귀결 2를 받아들인 경우에도 M2에 의해 '¬p⊨T<¬p>'는 성립한다. 따라서 귀결 2를 받아들이면 '¬T<p>⊨T<¬p>'가 성립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1-2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모순을 함의한다. p가 미결정일 경우 H2에 의해 ¬T<p>와 ¬T<¬p>는 모두 참이며 그래서 T<¬p>는 거짓이다. 따라서 '¬T<p>⊭T<¬p>'는 귀결 2에 의존해서도 성립한다. 전제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귀결 2에 의존할 경우 '¬T<p>⊨T<¬p>'와 '¬T<p>⊭T<¬p>'가 모두 성립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그래서 귀결 1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간극론자들은 귀결 1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귀결 1은 '진리의 보존'이라는 타당성에 대한 우리의 직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귀결 1을 수용했을 경우 'p⊨T<p>'와 'T<p>⊨p'는 성립하지만 '¬T<p>⊨¬p'는 성립하지 않음을 논제 1을 통해 이미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MWA는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MWA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의미론적 가정이나 논리적 귀결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필자의 논의에 대한 비판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 중 하나는 지금까지 필자가 보인 것은 간극이론과 논리적 귀결로 이해된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이 양립가능하다는 것일 뿐 조건문과 관련된 논증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태도적 동치(attitudinally equivalent)와 관련된 비판이다. 전자의 비판의 비판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다. 이점은 MWA의 특성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 누차 언급했듯이, MWA는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과 간극이론이 양립불가능함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MWA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양립가능함을 보여주면 된다. 물론 2장에서 확인했듯이, 이러한 양립가능성을 보이기 위해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주장이 직접 함의하지 않는 추가적 가정에 의존하는 것은 MWA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추가적 가정 없이 2장에서 언급한 C2가 성립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하였다. 따라서 ‘p⊨T<p>’와 ‘T<p>⊨p’와 간극이론이 양립가능함을 통해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과 간극이론의 양립가능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을 논리적 귀결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조건문을 통해 이해하는 것 보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어떤 측면에서는 논리적 귀결관계가 조건문보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더 정확하게 포착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을 통해 표현되는 p와 T<p>의 관계는 p가 참이면 T<p> 역시 참이라는 것이 예외 없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리에 대한 직관은 미결정인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p⊃T<p>’보다는 p가 참인 모든 모형에서 T<p>가 참임을 주장하는 ‘p⊨T<p>’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47] 그래서 C1을 만족하

47) 이점은 리차드와 그리너프의 논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도 있다. 앞에서 언

는 조건문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p⊨T<p>’와 ‘T<p>⊨p’만으로도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과 간극이론이 양립가능함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C2를 만족하는 p와 T<p>의 귀결관계에 기초해서 C1을 만족하는 조건문을 도입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진리값의 간극이 존재하는 주장이 직접 함의하지 않는 추가적 가정이 요구된다. C2를 통해 C1이 성립함을 보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연역정리 역시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주장의 논리적 귀결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C2에 기초해서 C1을 입증하기 위해 도입되는 추가적 가정은 적어도 MWA를 거부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가정은 아니다. MWA는 진리값의 간극과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이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이러한 양립불가능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서 C1을 만족하는 조건문의 도입은 간극이론 자체의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특정한 간극이론의 이론적 장점과 관련된 문제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연역정리가 성립하는 체계와 그렇지 않은 체계들 중 연역정리가 성립하는 체계가 논리적 참과 추론규칙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는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태도적 동치에 기초한 비판은 ‘수용’과 ‘거부’와 같은 우리의 태도와 관련해서 p에 대한 태도와 T<p>에 대한 태도가 동치이기 때문에 ¬T<p>를 수용하면 ¬p 역시 수용해야하고 그래서 ‘¬T<p>⊨¬p’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48] 이러한 태도적 동치관계에 기

급했듯이, 그리너프는 진리값의 간극을 허용할 경우 논리적 귀결을 중심으로 조건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를 도입했으며, 리차드 ‘p⊨T<p>’와 ‘T<p>⊨p’가 T-도식으로 표현되는 진리에 대한 직관의 핵심적 요소를 포착한다고 주장한다. Greenough(2010), p. 121-122, Richard(2000), pp. 215-216. 참조.

48) 태도적 동치와 관련된 논의는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이 글에서는 그러너(Greenough)의 논의에 기초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뒤에 나오는 태도적 동치

초한 논증(AEA)의 전제는 아래와 같다.

A1. S가 p를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S는 T<p>를 거부한다.
A2. S가 p를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S는 ¬p를 수용한다.
A3. S가 T<p>를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S는 ¬T<p>를 수용한다.

A1은 태도적 동치관계를 나타내며 A2는 수용과 거부의 의미에 의해 정당화된다. 마지막으로 A3은 A2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들을 수용하면서 A4를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T<p>를 수용하면 ¬p를 수용해야함이 입증된다.

A4. S는 ¬T<p>를 수용한다.
A5. S는 T<p>를 거부한다. (A3과 A4의 논리적 귀결)
A6. S는 p를 거부한다. (A1과 A5의 논리적 귀결)
A7. S는 ¬p를 수용한다. (A2와 A6의 논리적 귀결)
A8. S가 ¬T<p>를 수용하면, S는 ¬p를 수용한다. (A4-A7, 조건증명)

AEA는 '수용' 및 '거부'에 대한 우리의 직관(A1, 2 3)들을 통해, S가 ¬T<p>를 수용하면 S는 ¬p를 수용해야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A8을 받아들이면 논제 1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간극이론을 전제했을 경우

와 관련된 논증 역시 그러너프의 논증에 기초한 것이다. Greenough(2010), pp. 122-124. 참조.

A1은 성립하지 않는다. T<p>를 거부하지만 p를 거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극이론을 전제했을 경우 ‘수용’과 ‘거부’가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장과 4장의 논의에 기초해서 우리는 간극론자들이 취할 수 있는 수용과 거부의 전략을 아래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

1) p이면 S는 <p>를 수용한다.
2) ¬p이면 S는 <p>를 거부한다.
3) p가 미결정이면 S는 <p>를 수용하지도 못하고 거부하지도 못한다.

1)과 2)는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간극이론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3)인데, 3)은 간극이론의 정의적 특성에 기초해서 쉽게 입증할 수 있다. 간극이론에 따를 경우 p가 미결정이라는 것은 p가 참인지 거짓인지 결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 우리는 p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키가 큼’의 경계사례에 있는 철수에 대해서 ‘철수는 키가 크다’는 주장을 우리는 거부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만일 수용한다면 그것은 곧 ‘철수는 키가 크다.’가 참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거부한다면 ‘철수는 키가 크다’가 참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점은 H1에 의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결정 진술 p에 대해서 수용과 거부 중 하나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면, H1에 의해 p가 미결정일 경우 ¬p도 미결정이므로 우리는 p와 ¬p에 대해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는 p와 ¬p를 같이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비일관적 태도를 갖는다. 그래서 모순 혹은 비일관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3)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3)에 의해 우리는 A1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일 수

있다. p가 미결정일 경우 H2에 의해 ¬T<p>는 참이므로 우리는 ¬T<p>를 수용해하는데, A2에 의해 이것은 곧 T<p>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3)에 의해 우리는 미결정 진술 p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우리는 미결정 진술 p를 거부하거나 수용할 수 없지만 T<p>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도출된다. 그리고 이것은 곧 A1을 거부하는 것이다. A1에 의하면 p를 거부할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T<p>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A1을 거부하거나 A2를 거부해야하며 그래서 AEA는 성립하지 않는다. 더구나 위의 논의와 관련해서 A2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T<p>와 같이 확정적 진리값을 갖는 진술에 대해서, ¬T<p>를 수용하는 것이 T<p>를 거부하는 것임을 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p가 미결정 진술일 경우 A1은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A1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태도적 동치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A1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간극이론이 갖는 문제라고 주장 할 수 있다. 그러나 T-도식의 경우와 같이 태도적 동치관계를 논리적 귀결관계에 의해 정의할 수 있다. 즉 p의 수용이 T<p>의 수용을 함의하고 T<p>의 수용이 p의 수용을 함의하는 논리적 귀결관계로 p의 수용과 T<p>의 수용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1, 2, 3 역시 이러한 귀결관계에 의해 정의가 능하다. 그리고 이 경우 우리는 논리적 귀결에 의해 새롭게 정의된 전제들을 받아들이면서 AEA의 결론을 거부할 수 있다. 3)과 관련된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가 미결정일 경우 T<p>는 거짓이며 그래서 우리는 T<p>를 거부해야 하지만, 이 경우 p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런데 MWA와 같이 AEA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p의 거부가 T<p>의 거부의 논리적 귀결이어야 한다. T<p>를 거부하면서 p를 거부하지 않을 수 있다면, A5에서 A6으로의 추론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MWA와 동일한 방법으로 AEA 역시 거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간극이론을 수용할 경우 논제 1과 논제 2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MWA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이유는 간극이론을 수용하면서도 귀결1과 귀결 2가 동치라는 고전적 가정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제 2를 통해 확인했듯이, 귀결 1과 귀결 2가 동치라는 것은 간극이론과 양립불가능한 주장이다. 따라서 MWA는 간극이론을 가정하면서 그것이 갖는 최소함의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필자의 논증은 궁극적으로 ¬T<p>와 T<¬p>가 동치가 아님에 기초한다. 그런데 ¬T<p>와 T<¬p>가 동치가 아니라는 것은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직관적으로 추론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과 거짓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p가 참이 아니다.’는 주장은 p가 거짓일 경우 뿐 아니라 미결정일 경우에도 성립하는 반면 ‘¬p가 참이다.’는 주장은 ¬p가 참일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위해 우리는 미결정 진술이 있다는 것, 즉 이가율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이외에 ‘진리(T)’ 개념을 크게 수정할 필요도 없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T<p>와 T<¬p>가 동치가 아님은 진리값의 간극이 있다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함의하는 것인데, 이러한 간극이론은 논리적 귀결로 이해된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뿐 아니라 p가 참일 경우에만 T<p>는 참이고 다른 경우에는 거짓이라는 강한 의미론적 진리개념과도 양립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간극이론과 T-도식은 양립불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T-도식이 이가율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점

역시 ¬T<p>와 T<¬p>가 동치가 아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도식의 좌변과 우변을 부정하면 '¬p≡¬T<p>'가 성립하며 T-도식 자체에 ¬p를 대입하면 '¬p≡T<¬p>'가 성립하기 때문에, T-도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T<p>와 T<¬p>가 동치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논제 1을 통해 확인했듯이 이가율을 거부하는 M1을 전제하면 ¬T<p>와 T<¬p>는 동치가 아니므로 T-도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가율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극이론과 T-도식의 양립불가능성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극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T-도식의 제한성, 즉 T-도식은 고전적 의미론을 가정했을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윌리엄슨 논증 자체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윌리엄슨 논증은 이가율을 거부하는 간극이론의 문제점을 이가율을 전제하는 T-도식을 통해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확인했듯이, 간극이론은 논리적 귀결로 이해된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뿐 아니라 강한 의미론적 진리개념과도 양립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을 수용하면서 이가율을 거부할 수 있는 논리적 공간, 즉 간극이론을 위한 논리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더구나 굳이 모호성과 관련된 논의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미결정 진술이 있다는 것 역시 거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간극이론의 직관적 근거 역시 그리 약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논의가 구체적 간극이론에 대한 것은 아님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이글을 통해 보여준 것은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을 수용하면서 간극이론이 성립할 수 있는 논리적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간극이론과 관련해서는 각 이론들이 기초하는 의미론적 가정의 적합성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할뿐 아니라 간극이론을 도입하는 중요한 동기 중 하나인 '모호성'을 적

절하게 설명하는지 역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초평가주의와 같은 개별적인 간극이론과 관련해서 논의해할 것이지 이 글의 과제는 아니다. 이글을 통해 필자가 보인 것은, 미결정 진술이 있다는 직관과 진리에 대한 최소직관이 양립가능성이며 그래서 간극이론이 처음부터 잘못된 전략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진희 (2014), “모호한 함축에 대하여”, 『철학적 분석』, 30집, pp. 17-55.

Barnett, D. (2013), “Vague entailment”,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91, pp. 325-335.

Bobzien, S. (2012), “If It's Clear, Then It's Clear That It's Clear, or is It? Higher-Order Vagueness and the S4 Axiom”, In B. Morison and K. Ierodiakonou (eds.) *Episteme, etc*, Oxford University Press, pp. 189-212.

Dummett, M. A. E. (1978), *Truth and Other Enigma,* Harvard University Press.

Fine, K. (1975) “Vagueness, truth and logic”, *Synthese,* 30 (3), pp. 265-300.

Greenough, P. (2010), “Deflationism and Truth-Value Gaps”, In N. Pedersen and C. D. Wright (eds.), *New Waves in Truth*, Palgrave Macmillan, pp. 115-125.

Graham. P. (2006), *In Contradi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Richard, M. (2000), “On an argument of Willamson's”, *Analysis,* 60 (2), pp. 213-217.

Varzi, A. C. (2007), “Supervaluationism and Its Logics”, *Mind,* 116 (463), pp. 633-675.

Williamson, T. (1994), *Vagueness*, Routledge.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Dasan University College, Ajou University
ren-man@hanmail.net

부록	Abstracts

ARTICLE ABSTRACTS

Gab Theory and Minimal Intuition on Truth

Jinhee Lee

Williamson(1994) proved incompatibility of Gab Theory and Tarski T-schema. But this does not means that Gab Theory could not involve intuition on truth that is expressed by T-schema. I will show that Gab Theory and mutual entailment of ‘p’ and ‘it is true that p’(p⊨T<p> and T<p>⊨p) are compatible. It will draw that Gab Theory can involve minimal intuition on truth. After all what I want to reveal is logical space for Gab Theory through the compatibility of the mutual entailment and negation of the Principle of Bivalence. To prove the compatibility, I will present a consequent relation which should be accepted whenever we accept Gab Theory and demonstrate Gab Theory and the mutual entailment imply following two thesis; 1) not-T<p> and T<not-P> are not equivalent. 2) p entails T<p> but not-T<p> does not entails not-p.

Key Words: Gap Theory, Principle of Bivalence, Logical Consequence, Williamson